

하룻밤에 20만원 호텔보다 비싼 한옥마을

‘관광진흥법’ 적용 받아 숙박 요금·환불규정 안내 미흡

전주 일부업체 카드 결제 거부...서비스 교육 강화해야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명이 찾는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형태의 한옥 고택 700여채가 빼곡히 자리하고 숙박체험관, 소리문화관, 공예품전시관 등 관련 시설이 갖춰진데다,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해 연중 국내외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으로 불만을 사는가 하면, 국내 대표 관광지에 걸맞지 않은 미흡한 서비스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내놓은 ‘전주지역 숙박업소 가격표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전주지역 숙박시설(2인 1실 기준)의 하룻밤 이용요금은 최대 20만원에 달했다. 이는 성수기 평일 인근 호텔 요금(15만 4000원)과 일반 숙박시설(12만원)에 견줘 이용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업 숙박업소 153개를 비롯, 전주 숙박업소 210곳의 이용요금과 환불규정 등을 조사했다. 요금과 환불규정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53곳의 한옥체험 숙박시설 중 148곳(96.7%)은 요금을 게시하지 않았다. 한옥체험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요금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아 의무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일부업체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만을 고집했다는 소비자 신고도 접수됐다. 또 환불규정을 게시한 한옥체험 숙박체험업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관광객 유치에만 공을 들일 게 아니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친절·위생·서비스 교육 등을 강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담아 갈 수 있도록 전주시와 숙박업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논개 탄신 424주기 제례봉행 주논개 탄신 424주기 기념식이 28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논개 생가지에서 군내 기관단체장, 의암주논개정신선영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574년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태어난 의암주논개는 1593년 6월 임진왜란 때 왜장을 끌어들여 함께 목숨을 건져 순절했다. /연합뉴스

군산시, 예술의전당 일대 명품 문화예술거리 만든다

군산 예술의전당 일대가 문화예술거리로 탈바꿈한다. 군산시는 2017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예술의전당 옹벽과 보행로 등에 고은 시인의 ‘만인보’, 채만식의 소설 ‘타류’, 지역 미술가 작품 등 향토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공간을 내년까지 꾸밀 예정이다. 보행로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꾸미고 주민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게시판도 꾸밀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 사업이 되도록 설계를 하는 한편, 예술의전당과 연계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세계 무형유산, 영상으로 즐기세요”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31일~9월 3일 영상축제

무형유산을 주제로 제작된 각국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영상축제가 열린다. 문화재청은 ‘2017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P)를 오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연다. 영상축제는 ‘놀이하는 인간, 문화를 만든다’를 주제로, 15개국에서 만들어진 장편영화 10편과 단편영화 21편이 상영된다. 10편은 국내에서 처음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영화는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상영된다. 처음으로 시상 제도가 도입된 ‘디스커버리’ 부문에서는 1000여 편 중에 엄선된 9편을 볼 수 있다. ‘스페셜’ 부문에서는 민족지(民族誌) 영화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티모시 에쉬의 작품을 이기중 전남대 교수와 함께

감상하고 프랑스 영화감독 알렉 레네가 1940년대에 만 고흐·폴 고갱·피카소의 삶과 작품 세계를 담아낸 연작을 관람할 수 있다. 가족 관람객을 위한 ‘패밀리’ 부문에서는 애니메이션 5편과 극영화 2편이 상영된다. 영화와 공연의 합동 무대로 꾸며지는 ‘스펙트럼’ 부문에서는 ‘왕의 남자’와 전통장작그룹 이글림의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조선미술사’와 이은결의 공연도 볼 수 있다. 이외 국립무형유산원이 수집한 고(故) 강선영 태평무 보유자의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제작한 영화인 ‘초혼’과 1965년 안성 청룡사에서 촬영된 남사당놀이 필름을 고화질 영상으로 복원한 작품도 공개된다. 영상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iiff.ih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정읍시립국악단 ‘달하 노피곰 도다샤’ 공연

내달 5일 정읍사공원

정읍시립국악단과 시민이 함께 만들 어가는 ‘달하 노피곰 도다샤’ 공연이 오는 9월 5일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달하 노피곰 도다샤’는 매월 보름날 날에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마련돼오고 있는 정읍시립국악단의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단의 실내악 연주와 부채춤, 신민요 등이 펼쳐진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초청공연으로 ‘신관철류 한량무’와 줄리야강 점퍼댄스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외 달빛 소원 빌기와 올빼미 보부상 체험 등도 공연 외 프로그램으로 곁들여진다. 올빼미보부상은 공연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민속놀이와 팔찌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흥겨운 국악공연을 즐기며 새로운 활력을 얻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서남대 정상화하라” 남원시민들 상경 집회

내달 4일 광화문 거리 행진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남원 지역민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서남대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는 “서남대 폐교를 막기 위해 상경 집회와 금요 촛불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경 집회는 내달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다. 남원시민과 서남대 교수·학생 등 500명 이상이 참여하며 택시 100대도 동참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시민들은 택시를 앞세우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서남대 폐교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시민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 남원시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염원하고 교육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폐쇄 계고를 하는 등 폐교를 공식화해 모든 역량을 집중, 막아낼 것”이라며 “서남대가 건전 사학으로 거듭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월주택지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순창군 인계면 읍에서 5분거리 대지 1302㎡ 마을도 출몰 7천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완도 악산면 득림리 해수욕장전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완도 악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팬션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 · 원룸 · 아파트

- 별장용주택 화순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당 50평 주택 600평 3억3천 상토요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물 124㎡ 임대 19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합평역 인근 대로점 주가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9천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제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부안군 변산면 땅 1675㎡ 건물2동 430평 객실 43개 10억 가격조정됨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산책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물 334㎡ 건물 임대중음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저 감정 2억5천, 매도 1억원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 3천 매도 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원문앞

최고 투자처·팻섬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산 3, 4, 5, 6번지

■ 비금도 내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 관리지역

■ 육지에서 1km 지점

■ 향후 개발가치 100억이상, 투자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 4억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